

한국섬진흥원 출범식...“대한민국 섬 심장부에 여수 새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섬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지난 8일 목포 삼학도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우리나라 최초 섬 전담기관 ‘한국섬진흥원’ 출범 여수 365섬 사진 기증...섬박람회 개최 도시 알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섬 지역 기초지자체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섬 주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5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기념 퍼포먼스, 현관 제막식 등의 출범식 진행 후, 섬진흥원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섬 관련 지자체 홍보물 기증식과 행안부 장관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여수시는 여수에서 활동하는 여수 365개 사진을 조합한 작품을 기증하며 한국섬진흥원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 사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여수시는 365개 섬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여수가 세계적인 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전남이 섬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안부 장관 주재 섬 지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인류 보편의 과제인 평화와 인권,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수사건 기념공원을 여수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화태-백야 간 연도교 개설 대비 국도 17호선 교통량 분산과 관광객

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돌산읍 안골 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3년간의 여정 끝에 지난 8월 9일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을 인정받아 기재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및 도서 일원에서 개최되며,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해 섬이 지닌 미래 무한한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여수=오상호기자

보성군, 섬진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선정...14억 5천만 원 확보

보성군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금(국고) 1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총 4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이 중 ▲생거복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문덕면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총사업비 17억 9백만 원(기금 1,450 군비 341)을 투입하여, 복내면과 문덕면의 경로당 2개소를 개축하고, 7개소는 그린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냉난방 시설 교체, 화장실·싱크대 교체, 고효율 창호 등이 설치된다. 특히, 농촌 마을 경로당이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특별지원사업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약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가을철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7일 광양 인동로타리에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가을철 식중독(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가을에는 날씨가 추워져 음식 보관에 소홀해지지만, 올해 낮에도 기온이 높고 가을장마가 이어지고 있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으며, 특히 초가을인 9~10월은 비브리오 패혈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수칙으로 ▲음식 조리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육류 등은 7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김밥, 도시락 등은 식힌 후 조리 및 포장하기 등이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생식을 삼가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바닷물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야 한다. 광양=심종섭기자

고흥군,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고흥군은 오는 10월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접종완료한 75세 이상 및 노인시설 입소자 등 고령층을 우선으로하여 11월 초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0세 이상 추가접종 대상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개별 접종일정 2주전부터 사전예약 개별 안내가 문자로 발송되며, 예방접종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콜센터(830-4614~4615, 4618~4619), 읍면보건지소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이 곤란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모바일 예약 지원 및 대리예약도 가능하며, 23개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를 접종한다. 기동취재본부

허석 순천시장 “정원도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아태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정책 발표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및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참가해 ‘정원도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사례로 발표했다. 수원포럼은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과 연계하여 국내외 지방정부 정상들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정책 중,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아·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확산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방정부 세션 패널로 초청되어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에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정원을 통

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지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 있는 순천의 사례를 설명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히 순천시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순천만의 깃털이 보전되었듯이 아이나무·반려나무심기 등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시민주도의 박람회 개최”를 강조하면서 “도시 정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산업 육성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 참석자들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채택 후 아·태 환경장관포럼 측에 전달 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시, 평생학습박람회 자원봉사단 모집

순천시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자원봉사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행사장 안내, 질서유지,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 박람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게 된다. 자원봉사 포털(1365)에 가입되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는 1일(8시간), 4일간 봉사가 원칙이며 단기 1일~3일 봉사도 가능하다. 모집 입원은 200여 명으로,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사전교육을 거쳐 행사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